

## “정몽준 재벌 배불리기에 또 세금을...”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 일방 매각 추진 반대” ...27일, 매각 중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가 사측에 노동조합 동의 없이 추진하는 대우조선 인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 인수가 고용과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회사가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 인수를 고집하면 전면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현중지부는 4년 동안 구조조정으로 3만 5천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무급휴직 상태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여부 등 고용 문제가 커져서 쌓여 있는데, 회사가 고용안정 대책은커녕 대우조선 인수를 발표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대우조선 인수와 사업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상선건조,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사업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효율 경영을 핑계로 해고와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 현대중

**중양쟁대위**

고용안정쟁취 원아청 공동투쟁 임·단투 승리

WWW.ILABOR.ORG • 피난로 : 중앙쟁대위 대내외 선전실 • 배너 : 중앙쟁대위배너위원회 회장 박근태 • 배너날 : 2019년 2월 13(화) • 제 104 호

**정씨일가, 지주사, 중간지주에 뺨 뜨기고 고용불안 야기할 인수 중단하라**

**일방통행식 대우조선 인수 즉각 중단하라**

발사 : 2019년 2월 12(수) 오전 10:00시 장 : 울산시청 401호 (현: 울산시청 401호)

조선업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세계경기는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미래가 불인정하다. 만약 계속 불황이 이어진다면 매머드급 영치의 조선소 부실은 국내 조선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업은행이 중여부자에 따른 '비효율 제거' 운운한 데 이어, 어제 회사 소식지 역시 각 이드의 '효율적 운영' 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인력 중심사업인 조선업의 비효율 제거는 곧 인력 구조조정이다. 필요로는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중대 인력의 구조조정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생산기지로 추락하는 현대중공업

공업이 동반 부실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지부는 조선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대우조선 인수가 나타나고 지적한다. 인수과정에서 조선경기가 어려워지면 경영부담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2조 3천 억 원 가량의 영구채를 안고 있고, 2021년 말까지 대우조선에 자금이 부족하면 현대중공업이 1조 원 가량의 지원 의무를 부담해야한다는 인수조건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현대중공업 재벌 퍼주기' 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거래는 현대중공업이 현금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조선부문 지주회사로 자기 지분을 내놓고 통합회사를 만드는 식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투자한 공적자금을 현금이 아닌 통합지주회사의 지분으로 받는다.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에 직접 지불하는 현금은 없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경남과 거제 지역의 조선기자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지적이 있다. 대우조선은 거제, 경남, 부산 등 남해안에 위치한 중소 조선기자재 납품업체들에게 부품을 납품받지만, 현대중공업은

기자재 대부분을 자회사에서 가져 온다. 이런 차이로 경남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대량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시도에 대해 ▲밀실 합의, 일방 매각 즉각 폐기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빅1 체재 재편 중단 ▲노동조합 참여 보장, 고용안정대책 마련 ▲거제, 경남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재벌만 배불리는 재벌특혜 중단 등 5대 요구안을 내놓고 대응할 예정이다.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월 12일 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2월 18일과 21일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을 사회여론화 하는 사업을 벌인다. 노조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밀실합의 대우조선 일방 매각 중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연다.

# “김승연 회장, 경영복귀 전 민주노조 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 한화 회장 결단 촉구 기자회견 ... “노조파괴 중단하고, 2017·18년 임단협 마무리하자”



금속노조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복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화 자본이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와해를 위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풀기 전 회장의 경영복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월 11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 앞에서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종료, 경영복귀 첫 과제로 한화그룹 노조 탄압부터 해결하라’ 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등 불법을 저지르는 한화그룹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김승연 회장의 경영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2월 11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이다. 김승연 회장은 법원 판결을

선고받고 자숙하겠다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집행유예 만료와 함께 경영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노조 존중 없는 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화는 2년 동안 삼성테크윈 지회와 단체교섭을 미루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신속하게 단협 체결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노조와 차별하는 노무관리와 노조파괴로 한화 관리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명확하게 처벌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라고 덧붙였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한화 자본이 금속노조와 지회의 요구를 외면하면 노조가 한화그룹과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김승연 회장이 경영복귀를 꿈꾼다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최태돈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 지회 부지회장은 “지회가 사회 상식 수준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를 회

사가 들어 보라는 게 요구다. 2년 동안 회사는 지회 제시안에 의견을 밝히지 않고 관리자를 통해 민주노조 와해 공작만 펼쳤다” 라고 규탄했다.

최태돈 부지회장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노조를 파괴하고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이 사회 상식 수준에서 바로잡아 달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1월 18일부터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설 연휴에도 상경 투쟁을 계속했다. 지회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회장 집 앞에서 노조 와해 시도에 대해 김승연 회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한화그룹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사업장에서 삼성테크윈지회와 단협을 체결하라며 상경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